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잠언 2:1-6

잠언의 가장 큰 주제는 신앙과 지혜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삶을 사는 지혜와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을 구하듯, 보화를 찾듯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를 구할 때 적극적인 행동으로 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닌 갈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를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즉,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님께서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할지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 줄 내가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의 말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이해한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겠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즉, 주변인들은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받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달하였는지 고민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